

5/10(화) 대하 29-32장 히스기야, 회복의 왕 개혁자 ㉠

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다윗의 제의를 다시금 확립했습니다.

❶ 폐쇄되었던 성전 문을 개방하였습니다(28:24, 29:3).

이는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이 복구되었음을 상징합니다(계3:8,20 참고).

❷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준비시켰습니다(29:5,12-14).

레위인들의 참여는 다윗 제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(대상23:2-26:32).

이들은 성전과 기물을 정화하고 더러운 것들을 축출했습니다(29:15-19).

반열에 따라 자신들의 직임을 이행했습니다(31:2).

❸ 성전과 제의,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.

그 과정은 속죄일이나 제단 봉헌식과 유사합니다.

(29:17,21, 레16:1-28, 23:26-32, 겔45:18-20/ 민7:87-88 참고)

성전 제의를 재개하며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.

온전한 준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(29:34,30:17).

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시작을 귀히 여기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(30:18-20).

❹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마련했습니다.

왕은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공급하게 함으로

그들이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에 힘쓸 수 있게 했습니다(31:4).

제의와 성전의 회복은 왕국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.

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영적 회복에 동참했으며(29:34)

레위인과 제사장의 몫 역시 충분히 채워졌습니다(31:10,대상6:54-81 참고).

각 성읍마다 산당을 제거하는 정화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(31:1).

히스기야는 남과 북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(29:24, 30:6-10).

제사장과 레위인, 온 회중과 나그네들까지 절기로 함께 했습니다(30:25).

솔로몬 이후 최대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(30:26).

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<모든 영역>에서 온전합니까?

❶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, 예배, 직임, 직분자, 헌신자 모두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까?

❷ 갈등과 차별,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하 29-32장